

연결된 엄마들, 새로운 여성주의 주체의 형성¹⁾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2019년 1월 17일 1년여를 끌어온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언론들은 비리를 폭로한 평범한 엄마 아빠가 유치원 3법 통과에 주역이라고 평하면서 2018년 3월 감사적발 유치원의 정보 공개 청구부터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이끌어낸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조명했다. 2019년 오마이 뉴스는 [2019 올해의 인물]로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엄마들”을 선정하면서 2016년 어린이집 앞에서 사망한 해인이,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사망한 하준이 그리고 2019년 5월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사망한 태호와 유찬이, 그리고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를 당한 뒤 각자의 터전에서 싸워오던 이들을 매개한 사회단체로 ‘정치하는엄마’들을 소개했다.²⁾

이 글은 우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 특히 육아, 육아와 생산노동을 저글링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시간부족과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엄마’들이 한 칼럼을 계기로 모인지 50일만에 단체를 창립하고 어떻게 지난 3년 간 주로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각자도생하면서 오랫동안 ‘고립된 존재’로 살아왔다. 2000년대 이후 온라인 공간의 등장은 가정과 아이에게 묶인 여성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어온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힘돋우기 할 수 있게 되었다³⁾. 때로는 2008년 미국산 수입소 반대운동의 유모차부대처럼 ‘엄마’로서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주로 구체적인 이슈-미국산 소 수입, 미세먼지 대책 등-가 발생했을 때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기혼여성의 삶을 재조명하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었다(ex 82년생 김지영, 경년등의 소설). 아울러 기혼여성들 내에서 자신의 삶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구조에 문제제기하는 움직임들이 두드러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탄생할 수 있었고, 지난 3년여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공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소통공간에 대한 참여관찰, 그리고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연결된 엄마들의 활동 양상, 소통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돌봄’의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여성주의 주체로 부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발표문은 발표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5959&CMPT_CD=TAG_PC

3) 강혜원(2018). #맘스타그램에서 읽어내는 SNS 시대의 모성풍경. 이희은 외. 『디지털 미디어와 페미니즘』 중 166~200. 김수아. (2008). 온라인 글쓰기에서의 자기 서사와 정체성 구성. 한국언론학보, 52(5), 56-82.

-정치하는엄마들의 소개, 한국의 정치적 모성의 실천 주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들이 새로운 정치적 모성을 실천할 수 있었던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online 공간임. 정치하는 엄마들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은 이미 여러 언론인터뷰/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에서 밝혀졌듯이 online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탄생 역시 facebook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창립과정도 그리고 이슈의 의제화도 online 공간에서 이뤄짐.

-세대적 요인들(정치, 온라인 경험에 대한 이해)-online 공간 내의 정치참여, 팬클럽 활동에 익숙한 세대

-online 공간에서의 활동 & 연대-이어달리기의 양상들 & 사무국 형성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나타나고 있기는 함. burn out 되는 양상들... 사무국에 많은 일들이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함.

-사적-공적 공간에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사적 대화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함. 이는 문제 해결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 분노...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음. 정치하는엄마들 초창기 cafe의 분위기는 맘cafe와 유사한 분위기도 존재함. 하지만 사적인 대화가 부재하는 것에 대해 초창기 회원들은 조금 아쉬워하고, 이 부분이 결여되는 것의 아쉬움들이 존재함.